

보고서 베끼기, 그 대안은?

윤희정

숙명여대 교육학부 강사
숙명여대 교수학습센터 前 팀장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넘어서 한 학기의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본격적인 보고서 제출 기간이다. 도서관 열람실은 여느 때보다 서가 밖에 쌓여있는 책들로 어수선해질 것이다. 바빠지는 곳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고르고 모아 조금 다른 내용으로 ‘재편집’을 한다. 학생들은 보통 보고서의 주제가 제시되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한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다양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국어 붙이기” 만으로도 한편의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학생들의 보고서에서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문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지난 해 한 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¹⁾에 따르면, 유료 리포트를 구입했거나 친구나 선배의 과제를 표절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응답자의 65.4%에 달했다. 유료 리포트 구입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최신정보 획득이 용이”하고 “표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과제를 수행할 만한 시간이 부족해서”의 순으로 과제 표절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과제 표절에 대한 인식의 현황을 보면, “죄의식을 조금 느낀다(49.8%)”, “그저 그렇다(22.6%)”, “죄의식을 많이 느낀다(15.1%)”, “전혀 느끼지 않는다(11.8%)”의 순으로 나타났다(정주영, 2008).

이러한 상황에 이르다보니 보고서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근래 들어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절예방 프로그램이다. 고려대학교에서 개발된 “리포트 표절검사 프로그램(KUREPOLIS: Korea University Report Police System)”이나 부산대의 조환규 교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한글판 표절

1) 본 조사는 부산대학교에서 『과제 표절 현황 및 인식도 조사』라는 제목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기간 및 대상,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문조사 기간: 2007. 10.~2008. 1.

나. 설문조사 대상: 부산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 648명

다. 주요 조사 내용

- 1) 유료 리포트 구입 경험 여부 및 학기당 구입 건수 조사
- 2) 과제 표절에 대한 인식도 조사
- 3) 대학교육에서의 교육윤리교육 경험여부 조사
- 4) 과제표절 탐색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 5) 대학교육에서의 교육윤리교육 접근 방법에 대한 조사(출처: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6회 동계심포지엄 자료집)

예방 프로그램 “디박(DeVAC: Document eVolution Analyzing Center)”²⁾은 한글인식기능이 탑재된 과제물검사 프로그램이다. 디박은 자주 쓰는 단어와 신생어를 포함, 총 2억 어절을 망라한 “한글말뭉치사전”이 탑재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들은 유사 단어 표절여부를 퍼센트로 나타내 준다.

리포트 표절 프로그램을 보고서 평가에 활용할 때에는 활용 원칙을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디박을 구동시켜 의심이 가는 보고서를 가려내고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제 활용하고 있는 조환규 교수에 따르면 5~6개의 단어가 유사하면 대부분 표절이고 학생들도 자인한다고 한다(교수신문 2008. 9. 22).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학생들이 보고서를 ‘베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학생들의 윤리 불감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보고서 베끼기 현상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경우 더 쉽게 나타난다. 대규모 강의나 사이버 강의와 같이 교수자와의 일대일의 관계맺음이 어려운 수업의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보니 대규모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자는 학생의 보고서를 ‘관리’ 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 된 것이다.

학생들에게 보고서 과제의 수행을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한 학기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응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고서 작성 활동은 해당 수업을 통한 학습의 일부이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해당 수업에 대한 자신의 공부를 스스로 정리해 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보고서들은 대부분 “무엇에 대해 조사하라”는 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과제의 결과물은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가 되기 쉽다. 학생들은 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보고서를 완결하게 된다. 여기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의견이나 탐구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수도 있는 것이다.

2) 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이 주소로 접속하면 외부에서도 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http://devac.cs.pusan.ac.kr:8080>



◆ 그렇다면 보고서 베끼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결과물을 중심으로 학습 성취의 수준을 판단하려는 소극적인 평가 태도라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보고서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글쓰기를 촉진할 수 있는 주제 혹은 방법인지 교수자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보고서 작성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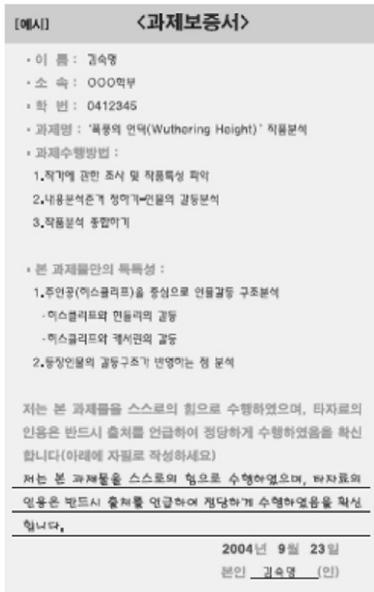
1. 보고서의 의미와 취지 탐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학생들에게 왜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지, 보고서 작성 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은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컨대, 교재에서 과제 해결에 유용한 부분을 제시하거나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시연해줄 수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탐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자료를 찾고 읽는 데 소요되는 대략적 시간을 알려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질문 또는 준거들을 예로써 제시해 줄 수 있다.

2.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제를 책임지도록 하자.

학생들에게 “과제보증서(숙명여대 교수학습센터 뉴스레터, 4권 3호)”를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활용해 볼 만한 전략이다. 과제보증서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 및 의의를 학생들 스스로 가치를 매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식의 하단에 과제작성에



[그림 1] 과제보증서 작성의 예

대한 서약을 자필로 적도록 하여 무분별한 표절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규제하도록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식을 추가하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을 수행했으며 결과물을 완성했는지 반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제물 자체에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양식을 활용할 때에도 사전에 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례와 함께 알려주고 그에 따른 처벌사항을 주지하도록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보고서와 피드백의 결과를 공개하자.

보고서 베끼기를 방지하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풍부한 결과물을 얻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학마다 수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실이나 커뮤니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서로의 과제물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고서가 공개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베끼기 문제가 감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피드백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학습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수자의 직접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서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때에는 보고서를 단계별로 작성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2~3 단계로 세분하여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하면 제출기일에 쫓겨 학습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최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주문함으로써 베끼기 자체를 방지할 수도 있겠다.

4. 수업방식의 변화를 계획하자.

최근 한 대학에서는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전공 교과목 운영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업 주제별로 사전에 개발된 문제를 토대로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Ideas), 이미 알고 있는 사실(Facts), 알아야 할 사실(Learning Issues) 등을 추출하고 스스로 과제를 분담하여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방법이다. 이 수업방법은 의과대학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학교육 전반에서 적용이 권장되고 있다.

PBL 중심의 수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실제 맥락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자다. 여기에서 부과되는 과제물들은 교수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학습의 과정에 포함되며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몰입도 역시 부과되는 과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BL 수업의 독특한 평가방법 가운데 하나인 “성찰일지(Reflection Journal)”의 작성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성찰일지란, 자신의 학습 수행에 관련하여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학습했으며, 학습한 내용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앞으로 이 지식을 어떻게 확장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본인의 말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내용을 더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교수들의 생각과는 달리—보고서에 대하여 자신의 학습 경험을 총정리하는 기회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수업 외의 시간을 들여 “해내야만 하는” 부가적인 일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를 부과할 때에는 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최대한 인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보고서 작성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자신들이 한 학기 동안 얻은 지식을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학습과제와 수업을 긴밀하게 연결시킴으로써 교수자 중심의 강의로부터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교수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과제물 베끼기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2004, 9.23). "과제? 교수님 손에 달려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뉴스레터 4권 3호 4면.

정주영(2008). Clean Campus 교육연구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 표절 방지 프로그램 활용 사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6회 동계 심포지엄 자료집(CTL의 새로운 역할 조명: 대학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97-117.

최성욱(2008. 8. 22). "표절 찾아내는 '디박' ...자기말로 글쓰기 교육 강조하기도: 리포트 베끼기 예방책 있나". 교수신문, 강의 · 교육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848>)

교수법 워크숍 개최

학내 교수 및 강사, 박사과정생들에게 효과적인 강의전략을 소개하고, 강의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강의를 위한 발성법 / 우지은 (前 MBC 아나운서)

[일 시] 11월 28일(금) 12:30 - 14:30

[장 소] 교수학습개발센터 (61동) 314호

[문의 및 신청] 880-5387, tweety05@snu.ac.kr, <http://ctl.snu.ac.kr>